



보도일시	2022. 2. 28. (월)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선대위 산하 역사와미래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이수진(비례), 이신철 공동위원장
담당자	김현호 비서관 010-6405-4865	담당자	이신철 위원장 010-8717-6118
E-mail	yookihong1001@gmail.com	E-mail	lsc8392@daum.net
사진	0	영상	X
기타 첨부자료 : 출범선언문 1부			

‘역사정의로 미래를 여는 대통령!’ 민주당 선대위 역사와미래위원회 출범

식민과 냉전의 피해 진상조사, 명예회복, 평화인권에 기반한 역사정책 수립
역사정의 실현, 올바른 역사교육 정립, 동북아 평화 주도국 대한민국!

민주당 선대위 산하 ‘역사와미래위원회’(공동위원장 유기홍, 이수진(비례), 이신철)는 2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곧이어 역사 관련단체들의 정책제언을 받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역사와미래위원회는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노동위원회 이수진(비례) 위원장,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안병욱(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조광(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주진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이준식(전 독립기념관 관장), 박찬승(한양대 명예교수) 등이 고문으로, 정용욱(서울대 교수), 김현철(서울대 교수), 이지원(전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이나영(중앙대 교수), 김광운(경남대 초빙석좌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오항녕(전주대 교수), 하종문(한신대 교수), 허영란(울산대 교수), 정진아(건국대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향후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민간 위원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기홍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간토대지진 조선이 학살 사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아직 진상규명도 다 이뤄지지 못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역사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출범하는 역사와미래위원회를 통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활동을 통해 역사정의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비례) 공동위원장은 역사문제와 노동문제의 불가분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강제동원 노동자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이신철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 위원들도 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20대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역사정의와 평화공생의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역사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을 공표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만 위원장(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도 참석해 “역사를 제대로 바로보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역사와미래 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역사와미래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출범선언을 통해 역사와미래위원회는 식민과 냉전의 피해를 겪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고통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피해사실 조사, 명예회복, 기억·기념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사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가해국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사정의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올바른 역사교육과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출범식 이후에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연대(이나영), 민족문제연구소(김영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김명준), 우키시마호 폭침 희생자 유족회(김영채), 군무원유족(윤경남), 강제징용피해자유족(임명순), 강제동원피해자유족(이운재),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김종수, 서면제출) 등이 참석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들 피해자와 단체들 역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자신들의 문제를 포함시켜 줄 것과 향후 실천을 반드시 담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체들의 경우는 각 단체의 요청사항을 문서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끝)

역사정의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식민주의와 냉전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 같은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내고, 급속한 산업화에도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아픔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역사를 온전히 기억하는 일을 충분하게 잘해 왔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피해사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사하고 일부 보상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가해국인 일본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명백한 사과와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 것조차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이 가로막고 있고, 일본군‘위안부’들의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이, 국내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따라 읊조리는 정치세력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황당한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식민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어나가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사할린, 동남아 등 머나먼 타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살당하고 버려진 동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의 유해를 모셔와야 합니다. 또 그들을 국가차원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식민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냉전과 독재의 피해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들의 피해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해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여전히 냉전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냉전적 역사인식을 드러내며 평화와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사 관련 단체들의 호소에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교과서 국정화라는 불필요한 정치파동을 겪으며, 평화와 인

권에 기반한 다양한 역사인식의 중요함을 함께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미래를 향한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역사정책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환경 등 새로운 미래 가치에 기반한 역사교육과 역사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범할 20대 대통령과 정부는 늦었지만,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그 아픔과 치유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소홀함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고 정부여야 합니다.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역사와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이처럼 중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류사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가장 모범적인 탈식민·탈냉전 평화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과거사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만 외치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정의를 실현되고 평화 공생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8.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역사와미래위원회]

[첨부2] 현장 사진

